

전자산업 해외투자 실태 분석(I)

국제부

1. 전자산업 해외투자의 최근 동향

1) 총괄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해외투자 현황은 '92년말 현재 허가기준으로 380건에 8억 5,700만달러에 달해 제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건수로는 26.8%, 금액으로는 30.2%에 달하고 있다.

투자기준으로는 '92년말 현재 315건에 5억 5,800만달러에 이르러 제조업 전체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건수로는 28.7%, 금액으로는 24.5%를 기록하고 있다.

<해외투자 현황>

부문별로는 생산법인이 허가기준이나 투자기준 모두 건수 및 금액면에서 50% 이상 또는 이에 약간 못미치는 수준을 보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연구개발 법인은 허가나 실제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건수 및 금액 모두 1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여 연구개발 분야의 해외투자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지역별

지역별 해외투자현황은 '92년 말 현재 허가기준으로 총 380건 중 동남아 지역이 단연 우세하여 114

건으로 전체의 30%, 북미지역이 91건으로 24%, 유럽지역이 56건으로 14.7%, 중국이 49건으로 12.9%를 차지하고 있다.

아직 지역적으로 다소 편중된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투자분야별로는 생산법인의 투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부문별

부문별 해외투자는 '92년말 현재 허가기준으로 전체 380건 중 부품 157건으로 41.3%, 산업용 83건으로 21.8%, 가정용 44건으로 11.6%를 차지하고 있어 부품의 해외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가정용, 산업용, 부품 각 부문 모두 연구개발 분야의 진출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연도별

연도별 해외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60년대부터 해외투자가 시작되었으나 80년대 전반기까지는 그 실적이 미미 했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기부터 해외투자가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국제 경제환경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겠으나 그것보다는 국내의 임금상승, 생산성저하 등 당시의 급격한 국내 경제 환경변화에 보다 크게 기

(단위 : 건, 백만\$, %)

구분	허가기준				투자기준			
	합계	생산	판매	연구	합계	생산	판매	연구
건 수	380	204	146	30	315	155	134	26
비 중	100.0	53.7	38.4	7.9	100.0	49.2	42.5	8.3
금 액	857	439	323	95	558.2	296	208	54
비 중	100.0	51.2	37.7	11.1	100.0	53.1	37.3	9.6

(단위 : 건)

구분	계	북미	유럽	동남아	중남미	중동	중국	기타
계	380	91	56	114	8	2	49	60
생산	204	28	21	83	2	1	49	20
판매	146	49	33	31	6	1	-	26
연구	30	14	2	-	-	-	-	14

* 자료 : 한국은행, '92년말 허가기준

(단위 : 건)

구 分	계	가정용	산업용	부 품	기타
계	380	44	83	157	96
생 산	204	30	32	124	18
판 매	146	14	37	32	63
연구 개발	30	-	14	1	15

* 자료 : 한국은행 # 기타: 복수부문 취급형태, '92년 말 허가기준

(단위 : 건)

구분	계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계	380	18	3	3	4	2	6	5	9	17	36	37	78	68	94
생 산	204	1	-	1	1	-	1	2	2	7	12	21	46	45	65
판 매	146	17	2	2	3	3	3	3	6	10	21	14	21	17	26
연 구	30	-	-	-	-	-	2	-	1	-	3	2	11	7	3

* 자료 : 한국은행, '92년 말 기준

<합작비율>

(단위 : %)

구 分	계	미 국	유 럽	동 남 아	중 국	기 타
100%	51.6	87.5	78.6	34.8	58.3	-
91~99%	6.3	-	7.1	-	-	42.9
71~90%	7.8	-	-	21.7	-	-
51~70%	10.9	12.5	-	17.4	8.3	14.3
31~50%	18.7	-	14.3	26.1	25.0	14.3
1~30%	4.7	-	-	-	8.3	36.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인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92년 한해만도 전자분야의 해외투자 건수는 94건에(허가기준) 달했으며 향후에도 국내전자산업의 구조조정, 세계경제의 재구축 등에 따라 국내전자산업의 해외 진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 해외투자 법인 개요

1) 진출 형태

해외진출 형태는 전체적으로 합작 대 단독투자의 비율이 52:48으로서 합작투자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완제품 업체가 주로 진출한 북미나 유럽은 단독투자 비율이 높고 부품업체의 진출이 많은 동남아는 합작투자비율이 높은데, 이것은 동남아 지역이 상대적으로 투자에 대한 현지 정부규제가 심하고, 현지 합작파트너 역할의 이점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종업원수

해외투자법인의 고용규모를 보면 200명 이상이 57.7%, 100~200명이 23.7%, 100명 미만이 18.6%를 보이고 있어 고용규모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상당규모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3) 투자자본금

해외투자법인의 투자자본금 규모를 보면 100만~500만달러 미만의 업체수가 전체의 53.2%, 500만달러 이상이 34.1%, 100백만달러 미만이 12.7%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가전을 중심으로 SET업체의 진출이 많은 유럽이나 동남아지역은 대규모 설비투자로 인해 500만달러 이상의 업체가 각각 40.4%, 52.1%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 우리업체들의 투자붐이 일고 있는 중국은 이와는 대조적으로 100만달러 미만이 27.3% 되는 것으로 나타나 소규모 중소 부품업체의 중국 투자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매출액('92년 기준)

해외투자법인의 '92년도 매출액 규모를 보면 1,000만달러 이상의 업체가 58%, 500~1,000만달러인 업체가 22.6%, 500만달러 미만의 업체가 19.4%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투자금액에 비하여 상당한 수준의 외형적 성장을 이루한 것으로 고무적인 현상이나 향후 내실있는 질적성장의 추구가 당면과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5) 판매시장

생산제품의 판매시장은 제3국 시장이 54.8%, 현지시장이 36.5%, 한국시장이 8.7%로서 제3국 시장의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단위 : %)

구 분	계	미 국	유 럽	동남아	중 국	기 타
200명 이상	57.7	55.6	58.4	76.4	44.5	53.8
100~200명	23.7	33.3	8.3	17.7	28.2	30.8
100명 미만	18.6	11.1	33.3	5.9	27.3	15.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투자자본금 규모>

(단위 : %)

구 분	계	미 국	유 럽	동남아	중 국	기 타
100~500만달러	53.2	66.7	51.3	43.5	54.6	50.0
500만달러 이상	34.1	22.2	40.4	52.1	18.1	37.5
100만달러 미만	12.7	11.1	8.3	4.4	27.3	12.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2년도 매출액 규모>

(단위 : %)

구 분	1,000만\$ 이상	500~1,000만\$	500만\$ 미만	계
비 율	58.0	22.6	19.4	100.0

(단위 : %)

구 分	계	미 국	유 럽	동남아	중 국	기 타
제3국 시장	54.8	47.5	58.7	56.1	55.6	56.0
현지 시장	36.5	52.5	41.3	30.7	15.7	42.5
한국 시장	8.7	-	-	23.2	28.7	1.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부품·자재 공급원>

(단위 : %)

구 分	계	미 국	유 럽	동남아	중 국	기 타
한 국	59.9	56.5	47.2	68.0	77.7	50.0
제 3 국	20.6	17.2	20.0	10.7	17.5	37.5
현 지	19.5	26.3	32.8	21.3	4.8	12.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임금 수준>

구 分	계	북 미	유 럽	동남아	중 국	기 타
1992	98.3	221.6	207.4	23.1	19.2	20.1
1993	103.9	229.3	216.3	30.9	20.1	22.7

북미 및 유럽법인은 현지 및 주변 제3국의 비중이 높고, 중국이나 동남아 지역의 법인은 주로 3국시장을 목표로 한 투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부품·자재 공급원

해외투자법인의 부품·자재 공급원은 전체적으로 한국에서의 조달이 59.9%, 제3국에서의 조달이 20.6%, 현지에서의 조달이 19.5%로서 부품조달측면에서의 현지화정도는 아직 낮은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세계경제의 불안화 경향에 따라 원산지 규정이 강화되는 추세임으로, 우리의 해외투자법인들도 진출국 현지에서의 원활한 부품·자재 조달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중국이나 동남아 투자기업은 특히 한국에서의 부품·자재공급비중이 높아 각각 77.7%, 6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현지국 임금 수준

가. 임금수준(우리나라 임금수준을 100으로 보았을 경우)

해외투자법인의 현지 임금수준을 보면 전체적으로 '92년이 98.3, '93년이 103.9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로는 상당히 차이가 있으며, 동남아나 중국은 단순한 임금수준 비교에서는 아직은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투자시에는 실질임금이나 현지임금제도를 충분히 연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나. 시간당 임금

해외투자 법인의 '92년도의 시

간당 임금을 보면 전체적으로 생산적이 US\$ 4.76, 관리적이 US \$ 7.76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생산적의 경우 북미나 유럽은 각각 US\$ 11.3, US \$ 10.8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동남아는 US\$ 0.8, 중국은 0.23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임금만으로는 의미가 불충분하며 임금과 생산성 등을 연계하여 총원가면에서 임금수준이 비교되어야 할 것이다.

8) 현지생산성 수준

(우리나라 생산성 수준을 100을 보았을 경우)

해외투자 법인의 현지 생산성 수준을 보면 전체적으로 '92년이 75.9, '93년이 80.4로 나타나고 있어 국내보다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유럽이 92.1, 북미가 81.4, 중국이 75.0, 동남아가 68.3로 나타나고 있어 해외진출계획 수립시 우리기업은 투자지역의 생산성 수준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9) 경영의 자율성

가. Marketing

마아케팅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현지에 64%, 본사에 36%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현지법인에 자율성이 상당히 부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미, 유럽 및 동남아 지역은 마아케팅에 대한 의사결정이 현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기타지역에서는 아직 본사의 역할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생산관리

<시간당 임금>

(단위 : US\$/1H)

구 분	계	북 미	유 럽	동남아	중 국	기 타
생산적	4.76	11.3	10.8	0.8	0.23	0.65
관리적	7.76	18.7	16.5	2.2	0.32	1.08

* '92 한국 전자산업 상용 근로자 시간당 평균 임금 : US\$ 4.85

구 분	계	북 미	유 럽	동남아	중 국	기 타
1992	75.9	78.6	85.2	64.2	71.5	80.0
1993	80.4	81.4	92.1	68.3	75.0	85.1

(단위 : %)

구 분	계	북 미	유 럽	동남아	중 국	기 타
현 지	64.0	83.3	79.1	71.4	18.2	33.3
본 사	36.0	16.7	20.9	28.6	81.8	66.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단위 : %)

구 분	계	북 미	유 럽	동남아	중 국	기 타
현 지	83.7	100.0	100.0	66.7	81.8	90.9
본 사	16.3	-	-	33.3	18.2	9.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단위 : %)

구 분	계	북 미	유 럽	동남아	중 국	기 타
현 지	61.8	63.6	64.3	68.8	54.6	33.3
본 사	38.2	36.4	35.7	31.2	45.4	66.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생산관리에 대한 의사결정은 현지법인에 있는 경우가 83.7%, 본사에 있는 경우가 16.3%로서 현지의 권한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든 지역이 현지의 의사결정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투자 지역의 경제 및 시장상황을 고려한 생산관리가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 중국지역은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데 주로 중소

부품업체의 진출이 많은 동지역의 현지화가 미흡함을 나타내고 있다.

다. 금융관리

금융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현지법인에 있는 경우가 61.8%, 본사에 있는 경우가 38.2%로 전체적으로 현지에서의 의사결정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우리기업이 다른 경영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문이 금융부문인데 기업의 국제화와 함께

재무관리 부문의 경쟁력제고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라. 자재수급

자재수급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현지에 있다가 56.9%, 본사에 있다가 43.1%로서 전체적으로 현지 법인의 의사결정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생산관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지생산을 위한 자재수급은 현지사정에 정통한 임직원의 경험과 의견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지역별로는 차이를 보이, 고 있는데, 북미나 유럽은 현지권 한이 상당히 높은 반면 중국 경우

는 본사의 의사결정권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진출국가가 개발도상국이거나 현지진출 역사가 비교적 짧은 현지법인들은 본사에 대한 자재 수급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 연구개발

연구개발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현지법인에 있는 경우가 19.6%, 본사에 있는 경우가 80.4%로서 연구개발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본사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지역에서도 현지법인의 의사결정 정도가 30%내외의 낮은 실정을 보이고

있고, 중국이나 기타지역에서는 R & D에 대한 의사결정이 모두 본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개발에 대한 현지화 정도는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보이나 연구개발의 특성으로 보아 본사의 경영전략과 연구개발 활동이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현지화 의미중의 하나가 현지의 문화나 소비자욕구를 충족시킬수 있는 제품을 현지에서 공급하는 것이라 볼때, 연구개발 분야의 현지화는 기업의 국제화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중의 하나인 것이다.

10) 진출국의 사회간접자본 편이도

가. 교통

교통의 편이도에 대하여 45.5%가 불편하다, 32.7%가 보통이다, 21.8%가 양호하다고 응답하여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그러나 지역별로는 크게 구분이 되어 북미나 유럽은 대부분이 교통사정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동남아나 중국은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통의 편이는 원부자재 조달의 원활화, 생산제품의 신속한 이동 등 물류의 기본이 되는 개념으로서 해외투자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나. 통신

통신 편이도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42.6%가 불편하다, 40.4%가 양호하다, 17.0%가 보통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는 큰 차이가 있어 북

구 분	계	북 미	유 럽	동남아	중 국	기 타
현 지	56.9	77.8	81.8	56.3	18.2	51.0
본 사	43.1	22.2	18.2	43.7	81.8	49.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구 분	계	북 미	유 럽	동남아	중 국	기 타
현 지	19.6	30.8	27.3	21.4	-	-
본 사	80.4	69.2	72.7	78.6	100.0	10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구 분	계	북 미	유 럽	동남아	중 국	기 타
불 편	45.5	-	-	50.0	63.6	33.3
보 통	32.7	23.5	30.0	35.7	36.4	66.7
양 호	21.8	76.5	70.0	14.3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구 분	계	북 미	유 럽	동남아	중 국	기 타
불 편	42.6	-	-	57.2	81.8	33.3
양 호	40.4	88.9	80.0	21.4	-	-
보 통	17.0	11.1	20.0	21.4	18.2	66.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미나 유럽은 대부분이 통신사정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동남아, 중국은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투자시 현지국의 통신설비 상태나 향후 투자계획 등 발전추세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다. 전력

전력 이용에 대하여는 45.7%가 불편하다, 32.6%가 양호하다, 21.7%가 보통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북미나 유럽이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중국이나 동남아는 81.8%, 57.1%가 불편한 것으로 조사되어, 이지역의 전력사정은 생산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력공급상태의 정확한 파악 역시 투자시 필수적인 고려 요소중의 하나이다.

라. 용수

용수의 이용에 대하여는 69.9%가 불편하다, 20.7%가 보통이다, 9.4%가 양호하다고 조사되어 사회간접자본증 상태가 제일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적으로는 중국, 동남아, 기타지역에서는 각각 45.4%, 43.8%, 66.7%가 불편하다고 응답하여 투자시 신중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마. 통관절차

통관절차에 대하여는 42.5%가 보통이다, 40.0%가 불편하다, 17.5%가 양호하다고 조사되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로는 차이가 있어 북미나 유럽은 대부분이 양호한 상태이나 동남아, 중국 및 기타지역은 상당수준 불편한 것으로 조

사되어 투자기업은 사전에 제반통 관제도나 절차 등 현지통관 요령을 숙지하여야 할 것이다.

11) 진출국의 조세율, 관세율 및 토지가격

가. 조세율

진출국의 조세율에 대하여도 44.3%가 높다, 29.6%가 보통이다, 26.5%가 낮다고 조사되어 상당수의 업체가 조세부담율이 높은 것으로 느끼고 있다.

투자시 현지국의 조세제도나 외국인 투자우대정책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현지 제도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도 좋은 투자전략이 될

것이다.

지역별로는 북미나 유럽의 경우 조세부담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동남아, 중국 및 기타지역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나. 관세율

관세율에 대하여는 54.9%가 보통이다, 26.8%가 높다, 18.3%가 낮다고 조사되어 대부분의 업체가 관세율 정도가 높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북미나 유럽의 경우 높다고 느끼는 정도가 각각 13.2%, 6.0%로 나타나고 있으나 동남아, 중국 및 기타지역은 그정도

(단위 : %)

구 분	계	북 미	유 럽	동남아	중 국	기 타
불 편	45.7	-	-	57.1	81.8	50.0
양 호	32.6	100.0	91.3	14.3	-	25.0
보 통	21.7	-	8.7	28.6	18.2	37.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단위 : %)

구 분	계	북 미	유 럽	동남아	중 국	기 타
양 호	69.9	83.7	80.0	28.6	-	33.3
보 통	20.7	16.3	20.0	27.6	54.6	-
불 편	9.4	-	-	43.8	45.4	66.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단위 : %)

구 分	계	북 미	유 럽	동남아	중 국	기 타
보 통	42.5	38.6	39.2	28.6	54.6	64.7
불 편	40.0	-	9.3	64.3	45.4	35.3
양 호	17.5	61.4	51.5	7.1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단위 : %)

구 分	계	북 미	유 럽	동남아	중 국	기 타
높 다	44.3	53.2	66.7	7.1	-	-
보 통	29.2	22.7	11.1	50.0	81.9	33.3
낮 다	26.5	24.1	22.2	42.9	18.1	66.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단위 : %)						
구 분	계	북 미	유 럽	동남아	중 국	기 타
보 통	54.9	70.9	80.9	30.6	38.3	53.6
높 다	26.8	13.2	6.0	42.8	40.5	31.7
낮 다	18.3	15.9	13.1	26.6	21.2	14.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단위 : %)

구 분	계	북 미	유 럽	동남아	중 국	기 타
낮 다	74.7	88.0	87.5	76.9	54.4	66.7
보 통	22.1	12.0	9.0	23.1	36.4	30.0
높 다	3.9	-	3.5	-	9.1	3.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단위 : %)

구 분	계	북 미	유 럽	동남아	중 국	기 타
있 다	16.3	48.3	55.6	23.1	9.1	11.2
없 다	83.7	51.7	44.4	76.9	90.9	88.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경쟁국>

(단위 : %)

구 분	계	북 미	유 럽	동남아	중 국	기 타
일 본	35.4	32.3	25.6	44.9	36.8	37.3
유 럽	17.3	15.4	35.9	2.1	17.7	15.4
동남아	15.1	13.7	14.1	14.3	11.8	21.4
미 국	14.1	22.5	10.3	6.1	17.7	13.9
중 국	10.9	12.6	7.7	12.2	10.1	12.0
기 타	7.2	3.5	6.4	20.4	5.9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가 42.8%, 40.5%, 31.7%로 조
사되어 개발도상국의 관세율이 상
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UR타결로 인해 각국의 관세율
체계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전망
인데 업계차원이나 정부 또는 관
련기관에서의 신속한 관련 정보파
악 및 전파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 토지가격

현지 진출국의 토지가격 정도에
대하여는 74.7%가 낮다. 22.1%
가 보통이다. 3.2%가 높다고 조

사되어 전체적으로 토지가격수준
에는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각 국별로 토지제도나 관습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또는 정책에
따라 상당한 변화가 있으므로 투
자계약시나 계약후에도 항상 염두
에 두고 점검해야 될 항목 중의 하
나이다.

12) 진출국의 현지조달 의무 사항

해외투자 진출국에서 현지조달

의무사항이 유무를 보면 유럽이나
북미는 각각 55.6%, 48.3%가 현
지조달 의무사항이 있다고 조사되
어 선진국에서는 원산지 규정 등
이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나타
났으며, 동남아, 중국 및 기타지역
은 상대적으로 의무규정이 약한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국 규정의 강약에
관계없이 현지조달비율을 높이는
것은 해외투자 법인의 현지화 및
나아가 우리기업의 국제화에 있어
서 가장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이
므로 완제품 및 부품기업의 동반
진출, 현지기업 및 제3국 기업과
의 제휴, 합병 등 여러가지 전략을
통하여 현지조달비율 제고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13) 해외투자 법인의 경쟁국 기업

현지법인은 진출국에의 영업활
동중 현지업체 및 타국진출업체와
경쟁에 따른 애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경쟁대상으로 느끼
는 국가는 일본업체 35.4%, 유럽
업체 17.3%, 동남아업체 15.1%,
미국업체 14.1%인 것으로 나타나
고 있으며, 특히 동남아와 북미지
역에서 일본기업의 영업활동이 활
발하여 이지역에서의 현지화 제고
와 시장기반구축에 상당한 부담으
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선진국의 발빠른 행보와 경쟁국
및 후발개도국의 급속한 추격속에
향후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심각해질 것인데 우리기업은 국제
화속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적
자원 및 연구개발에 적극 노력해
야 할 것이다.